

고흥, 전국 최초 드론산업 특화단지 조성 한다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공사 이달 착공

198억 원 투입… 2026년 준공 목표 공영개발 추진

고흥군이 민선 8기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역점 추진 중인 드론산업의 기폭제가 될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 공사를 이달 착공한다고 3일 밝혔다.

농공단지는 고흥읍 고소리 1170번지 항공센터(고흥만) 일원에 13만 7,044m²(약 4만 평)의 규모로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해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영개발로 추진된다.

드론 연구·제조 등 4개 업종 25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는 전국 최초 드론 특화단지이다.

군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정 및 관



리계획 승인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했고 기업 유치 활동도 병행해 현재까지 34개 기업의 입주 의향서를 확보했다.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약 1,500명의 고용 창출과 이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약 453억 원의 지역 주민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전국 최대의 비행시험 공역과 국가 종합 비행 성능시험장·고흥 드론센터·드론 상업화 실증

지원센터 등 전국 최고의 항공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고흥만 일원에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드론의 연구·실증부터 생산까지 드론 산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농공단지 조성으로 고흥군의 드론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드론센터 입주기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고도화된 실증 장비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설비하고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지정되는 등 드론 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흥=신용원 기자

순천만가든마켓

온라인 쇼핑몰 정식 오픈

순천시 출자 기관인 농업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주)는 온라인 쇼핑몰을 정식 오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은 전국 최대의 정원수 생산지인 순천시의 정원문화산업 발전과 정원 관련 상품·서비스 확장을 위해 마련하여 지난 1일 정식 오픈했다.

시는 온라인 판매 여력이 없는 지역 정원수 생산 농가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오프라인 매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순천만가든마켓은 이번 온라인몰 오픈에 맞춰 12월 20일까지 모든 상품을 무료 배송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임승규 대표는 “온라인 쇼핑몰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여 지역 정원수 생산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향후 정원수 공판장 등 사업을 확장하여 정원 문화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문의 사항은 순천만가든마켓(061-724-4959)으로 하면 된다.

보성,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 ‘전남도 내 최고’

국·도비 2726억원 확보… 본예산 6581억원 편성

보성군은 2024년 본예산안 증가율이 6.11%로 전남도 22개 시군 중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보성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금을 2023년 본예산 대비 331억 원(13.85%) 증가한 2726억 원을 확보, 본예산안을 증액 편성했다.

주요 증가 국·도비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지원사업 658억 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44억 원,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21억 원, 대규모 산림복원 및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 40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49억 원, 별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3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사업에 60억 원 등이다.

특히 상하수도분야에 230억 원이 증가한 8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상수관로 확장 및 노후관 교체, 상수도 현대화 사업, 농촌생활활용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으로 가뭄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보성=장국도 기자

김철우 군수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민생경제가 어렵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지방재정 전망도 좋지 않지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투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세수는 그동안 적립해 온 재정안정화 기금 1500억 원을 투입해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과 대형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중단 없는 보성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보성군은 6581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 군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최종 확정된다.

/보성=장국도 기자

구례 토지면, 한국에너지재단 난방유 긴급지원사업 선정

경로당 38개소 7600만원 상당 지원

구례군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추진한 사랑의 난방유 긴급 지원사업에 토지면 경로당 38개소가 선정되어 7600만 원 상당의 난방유를 지원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한국에너지재단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의 촉약 계약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HD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 긴급 지원 / SK 행복나눔 난방비

지원」 하반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구례군 토지면 경로당 38개소가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토지면 경로당 42개소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3개소와 신축 중인 1개소를 제외한 모든 경로당이 지원을 받게 됐다. 각 경로당에 HD현대오일뱅크 5만 원권 주유상품권으로 2백만 원이 지급된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올겨울이 유

난히 춥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김순호 군수는 “토지면 직원들의 열정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기름값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적극 행정으로 값진 성과를 내준 직원들과 에너지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국에너지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광양 ‘12월 따뜻한 겨울나기 걷기 챌린지’ 운영

4~31일, 목표 걸음 달성자 450명 혜택

20만보를 걸으면 20만 마일리지가 쌓이고 모바일문화상품권 5천 원권 응모가 가능하다.

챌린지는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하고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해 챌린지 템에서 ‘참여하기’를 누른 후 목표 마일리지가 쌓일 때까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걸으면 된다. 다만, 광양 지역 제한 설정으로 챌린지 참여 시 반드시 휴대폰 위치 설정을 켜 둬야 참여할 수 있다. /광양=조준익 기자

곡성,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선정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4인가구 기준 월 8만원

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4억 2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정 10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내산 과일과 채소, 흰 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 가공 채소류, 산양유가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2024년에는 곡성군을 포함한 전국 2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역의 1,5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바우처는 종량제로 1인당 1주당 1회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곡성=황상연 기자

광양 “김장쓰레기 일반종량제봉투 사용하세요”

김장철 맞아 12월 한 달간 특별수거기간 운영

광양시는 김장철을 맞아 12월 한 달간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는 ‘김장철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면 지역을 제외한 음

동 지역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 용기에 납부 접두를 끊어 배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음식물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김장철인 12월에만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장철 동안 채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통배추, 배춧잎, 쪽파·대파, 양파 등의 뿌리나 껍질 등 이를질이 묻은 채소

류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다면, 가능한 한 작게 썰어놓은 김장재료(배추나 무)와 절이거나 양념 과정에서 나오는 양념, 젓갈류 등 이를질이 묻은 채소를 배출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를 이용해야 한다.

김용식 자원순환과장은 “김장철에 발생하는 김장쓰레기 기를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원활한 수거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해진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광양=조준익 기자

